

릴레이 헌혈하고 소망기원 풍선 날리고 노래 공연...이색 시무식 눈길



육군 31사단(사단장 서길원)은 2일 오전 사단 총장관에서 시무식을 마친 뒤 대한적십자사 광주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사단장을 비롯한 장병과 군무원들이 '사랑의 릴레이 헌혈' 행사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남체신청(청장 김치동)은 2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청사 현관에서 12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소망기원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해 공식 업무 첫 날인 2일 광주·전남지역 일부 공공기관과 대학, 군부대는 '딱딱한 시무식'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이색 이벤트로 새해를 열었다. 육군 31사단은 이날 오전 시무식을 마친 뒤 사단장을 비롯한 장병과 군무원들이 '사랑의 릴레이 헌혈'을 시작했다. 31사단은 대한적십자사 광주혈액원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사단 예하 36개 부대를 돌며 릴레이 헌혈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년째를 맞은 31사단의 '사랑의 릴레이 헌혈'은 매년 시무식을 마친 뒤 한 달여 동안 이뤄져 왔으며, 지난해에만 3천983명이 동참해 159만3천cc의 혈액을 공급하는 등 겨울철 부족한 혈액수급을 보충하는 데 기여해왔다. 전남체신청은 이날 오전 청사 현관에서 12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대신 '소망기원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형형색색의 풍선에 ▲건강기원 ▲승진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 등 각자의 소망이 담긴 글을 적어 날린 뒤 직원 상호 간 덕담을 나누고 시무식을 마쳤다. 나주 동신대는 이날 오전 시무식을 개최하기에 앞서 특별 이벤트로 유아교육학과 학생 및 노래 동아리 '하바벌'의 노래 공연을 가졌다. 유아교육학과 최영경 교수가 작사·작곡한 노래 'Get up my friend'와 '애교가'를 울동에 맞춰 선보이며 애교심을 다졌다. /최권일·박정욱기자 cki@kwangju.co.kr

상무소각장 법적 분쟁 종결

설치인 무효소 7년만에 대법 기각 결정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 사업 타력

광주시 상무소각장 가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7년여만에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2일 "상무소각장 주변 임모씨 등 주민 11명이 영산강환경청과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소각장 설치인 무효확인 소송' 재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구판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임씨 등이 지난 2006년 2월 광주고법의 각하 판결에 대해 재상고한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나긴 법적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상무소각장 법적분쟁은 임씨 등이 지난 2001년 2월 "환경부장관 권한인 소각장 설치 승인을 권한이 없는 영

산강환경청장이 한 것은 잘못"이라며 영산강환경청과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과 냄새 등으로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고측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나 2004년 대법원은 법적인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법은 "관련법 개정된 후 광주시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만큼 승인주체가 잘못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맞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또다시 불복 지난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며 법원은 "광주시가 영산강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무효라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원고측의 소제기에 실익이 없다"고 밝히면서 1,2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 등 7년여를 끌었던 소각장 소송은 결국 원고측의 패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소각장은 정상 가동을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조사 등 후속사업 추진에 타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743억원이 투입된 상무소각장은 1996년 6월 착공, 2000년 9월 완공됐으며 이듬해 7월부터 1일 300여의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행정혁신 평가 서구, 국무총리상

광주시 서구가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지방행정혁신 종합평가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구립 28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지방행정혁신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상금 5억원을 받았다. 각계 전문가 148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평가단이 지자체의 혁신역량(30%)·혁신과제(50%)·혁신 체감도(20%) 등 3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서구는 '비즈니스 365일 24시간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구는 특히 이번 종합평가에서 광주 5개 지자체 중 혁신 5단계 중 최고단계인 '내재화 단계'에 진입, 혁신 선도 자치구로서 입지를 굳혔다. 서구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전국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객만족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2억4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

빵·떡 제조업체 위생점검 6곳 적발

연말연시 소비가 많은 빵과 떡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서 6개 업소가 적발돼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달 각 자치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4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제과점 3곳과 식품제조가공업소 3곳 등 6곳이 원료 보관·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작업 환경이 불결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동구 대인동 P업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녹차 맛을 내는 첨가물을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또 남구 월산동 C업체는 식품 원료의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아 관계기관 고발과 15일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북구 양산동의 U업체는 설비가 저지분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도로정비 우수

광주시가 건설교통부의 2007년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노면과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제88회 전국체전에 대비해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폭설 및 결빙에 대비한 제설 자재 확보와 노후 제설장비 교체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후식기자 who@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위원회 상설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학교폭력 국민알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센터 (02)118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월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인민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무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소 369-9881	●여성긴급국번알이 1366 여기동수사대 (899) 229-0118 (339)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현대방센터 1391 ●광주노인현대방센터 1389	
●당직번호(3월) 응급구 227-0700 ●법무사회 법률상담(3월) 이법직 239-1809			

2008 전망과 트렌드

‘슬로 열풍’ 가속

느리게 살아보니 비로소 '존엄'

속도에 도전하는 '느림의 미학'이 2008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과 섬 특유의 민속 문화로 '가고 싶은 섬'에 손 꼽히는 안도의 청산도, 영화 '서편제'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이 섬은 지난해 12월 신안 증도, 장흥 유치면, 담양 창평면과 더불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됐다. '느림의 도시'인 슬로시티는 전통의 보전, 생태주의, 지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도시를 의미한다. 슬로시티에 가입하려면 ▲인구 5만 명 이하 ▲전통 수공업·전통 조리법 장려 ▲문화 유산 보존 ▲차량 통행 제한 ▲대기업 자본과 글로벌랜드 체인점 거부 ▲패스트푸드·유전자 변형 음식 거부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금지 등 현대 도시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운동에는 현재 전 세계 10개국 9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념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와 달리 생태·전통·환경을 모토로 한 관광도시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슬로시티로 선정된 전남 지역 4개 마을은 슬로시티국제연맹의 공인으로 시간이 머물러가는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속도'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인 패스트푸드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패스트푸드의 유행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까지 학교 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학교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패스트푸드 광고도 보기 힘들 전망이다. '패스트푸드' 일색인 외식업계도 '슬로푸드'를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쌈·찌개·설렁탕·등뼈찌개 등을 메뉴로 하는 한식 프랜차이즈가 유망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업체들은 슬로푸드를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슬로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는 '죽'은 젊은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체인점 수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동에도 '느림'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몸짱'선발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40대 주부가 탄력적인 몸매 관리 비법으로 소개한 '슬로워킹'이 주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과격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아니라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 몸매를 가꾼다는 '슬로워킹'은 운동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고 있다. 특별한 기구나 장소도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다. 운동 방법은 간단하다. 물병을 양손에 들고 허리·복부·엉덩이를 일직선으로 세우고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도록 몸을 보폭으로 천천히 걸지만 하면 된다. 이때 아랫배와 배꼽 주변, 뒤쪽 다리 근육·팔 안쪽 근육에 힘을 줘 긴장시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한번에 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